

종합·해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박찬숙 후보(수원 장안)가 10·28 재·보선 공식선거 운동 개시일인 15일 오전 격전지 중 한 곳인 수원 장안구의 성군관대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선대위원장인 손학규 전 대표가 15일 오전 수원 장안구 성군관대역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잡아야 재보선 승리” 여야 대격돌

10·28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경기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2곳과 강원 강릉,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 양산 등 전국 5곳에서 치러져 전국의 민심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연말 정기국회를 비롯해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 행사를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패배하는 정당은 지도부 교체와 조기 전당대회 등 만만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개연성이 크다.

이번 재선거에서 여야 모두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0:5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각 지역의 판세가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분석을 종합할 경우 한나라당은 강원도 강릉과 경남 양산에서 리드를 잡은 상태고, 민주당은 안산 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앞서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수원 장안의 경우 10월초까지만해도 한나라당 후보가 우세했으나 갈수록 격차가 좁

한나라 양산·강릉, 민주 충북·안산 우세 與 “지역 일꾼론” Vs 野 “중간 심판론”

혀져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 선거구마다 아직도 변수가 많아 서로 승리를 장담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재보선이 당내 리더십 유지는 물론 차기 대권주자로써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거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이 경남 양산에서 발휘될 수 있느냐와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지원하고 있는 수원 장안 재선거의 승부.

특히 수원 장안은 손 전 대표가 직접 출마를 포기한 채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고 있어 최대의 승부처로 꼽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날 여야 지도부

는 경기 수원과 안산에 총집결,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 공략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은 수원 경기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안산에서 지원유세를 펼쳤고, 민주당도 경기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안산과 수원에서 선거

“12월까지 시·도당 창당” 이병완 신당 주비위원장

‘진노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병완(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신당은 지역분권·시민주권 시대를 구현하는 한국적 참여민주주의의 새 장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대안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10·28 재보선 필승의 첫 스타트를 끊는 날로, 오늘의 출발을 대한민국 성장엔진이자 한나라당 버팀목인 경기에서 하게 돼 기쁘다”면서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10·28 재보선에서는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칭)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장인 이 전 실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광주시당 등 전국 1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내년 1월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교육건강성 지표 광주·전남교육청 상위권

김영진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울)은 15일 배포한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육 건강성 지표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강원(66점)에 이어 광주(60점)가 2위, 전남(59점)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15위, 서울이 16위로 수도권 등 화려



경쟁이 심할수록 교육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시설모의고사, 장애인 의무고용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안전사고, 기초학력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안기금 3천억 농산물 수입에 사용

김영록 의원

국회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안기금으로 시행한 구매비축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는 6개 품목 88억원에 그쳤지만, 수입농산물은 9개 품목 3천108억원으로 무려 53배가 넘는 다”며 “결국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입기금



야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7년도 농안기금 총대출액 4천400억 중 농민에 1천46억(24%), 기업에 3천394억원(76%)이 갔다”며 “농안기금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윤석 의원의 이상한 국감 행보

세종시 수정·토착비리 척결 발언 등 구설수

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이 ‘이상한’ 국정감사 행보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에 모든 부처를 다 내려 보내더라도 자족 기능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 의원으로서 처음 나온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이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토착비리 척결’을 적극적으로

로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토착비리가 만연하고 있고 지방 시장, 군수들이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했다는 설이 많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이 여권의 토착비리 수사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세종시 관련 기사는 자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오보며 토착비리 수사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실력있는 학원은 합격자로 말한다!
=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학전형 현재까지 1,450명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재! 동일한 강재 동일한 시스템!
최저한 알임제도 1:1원의응답 일일출석점검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g.co.kr

상위권대학 "실전문제풀이반" 대특강
D-80 합격완성

★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정복한다. ★

무료특강 시사독해 기초문법 개강 11월 2일

2010 편입영어 실전대비강좌
- 편입영어 문법정리, 어휘학습, 독해 유형별 접근법학습

편입영어 이론·학점과정

대학편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
김영 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 010-7766-1254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 (약 4,000평)
- 건물 :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불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용자 30억 포함)

☎ 010-3617-881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 이상 ~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역)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 (535평)
- 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분	면적(㎡)	용도
지하 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 매매가 : 25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 011-625-8153